

Shell, 세계 500대기업 “왕좌”

Fortune, 에너지 관련기업 상위 집중 ... 삼성 40위에 LG 69위

Royal Dutch Shell이 세계 500대 기업의 왕좌를 차지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Fortune은 2009년 매출액 기준 최대의 글로벌기업으로 Royal Dutch Shell을 선정하는 등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를 7월8일 발표했다.

Fortune지에 따르면, 네덜란드 Royal Dutch Shell은 2008년 3위에서 2009년 1위로 올라섰고 ExxonMobil이 2위를 차지했으며 2008년 1위였던 Wall Mart는 2단계 내려가 3위를 차지했다.

10위권에는 영국 BP와 Chevron, 프랑스 Total, Conoco Phillips, ING그룹, 중국 Sinopec, Toyota 등이 포함됐으며 10대 기업 가운데 에너지 관련기업은 7곳으로 1곳 늘어났다.

한국기업으로는 삼성전자(40위)와 LG(69위), 현대자동차(87위) 등이 글로벌 100대 기업에 들었으며 삼성과 LG, 현대차 등은 2008년보다 순위가 약간 내려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09>